

한일미래포럼 참가 후기

한일관광산업팀 정지현

8 월 13 일부터 16 일까지 약 4 일간 일본 요나고 에서 한일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일본 방송국의 취재가 시작되었고 한국인 참가자들과 다함께 모여 숙소로 출발하였습니다. 산레이크 숙소까지 가는 동안 아름다운 요나고의 풍경에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된 최근의 시국 탓에 일본까지 오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 시국에 가장 예민할 수 있는 토픽을 맡게 된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안전교육과 시설교육을 받는 순간부터 한국과 다른 일본 문화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내는 동안 규칙과 규율, 예의를 잘 갖추고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짐을 가볍게 정리한 뒤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 처음 보는 한국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일본친구들까지 정말 낯설지만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껏 공부했던 일본어를 총 동원해서 어색한 한마디 한마디를 하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한국어를 잘 하는 일본친구들과 어색한 분위기를 깼습니다. 주로 양국에 여행 경험은 있는지, 한국어 또는 일본어를 공부한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등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첫 식사를 했던 식당도 그림 속에서 밥을 먹는 듯 한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풍경이 아름다웠고, 일본식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 즐거웠습니다.

첫 토론은 일본 측 사회자를 중심으로 가볍게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 언니 4 명과 한국인 친구들 5 명이 통역을 거쳐 이런저런 사전에 정했던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각자 조사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가끔은 상대의 언어로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임을 느꼈습니다. 가벼운 첫 토론시간 이후 숙소에서는 두 명의 일본인 룸메이트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은 어색하고 한국어가 서툰 친구와 소통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제가할 수 있는 일본어를 최대한 활용하고, 일본 친구들도 한국어로 노력해 줘서 4 일간 같은 방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일본어만 사용하다가 귀국하는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많은 대화를 하려고 했고 친구들도 상냥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둘째날에는 종일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관광팀같은 경우에는 일부 참가자가 지나친 자료에 대한 집착과 맥락을 잡지 못하는 진행으로 필요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고 통역자와 사회자가 힘든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느낀 것이 리더 역할의 중요성과 서로간의 경청이었습니다. 자기 의견의 피력 뿐 아니라 조별활동인 만큼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시 되는 가를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둘째날 종일 진행되었던 토론이 있기 전, 아침 일찍부터 화창한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관광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시골 풍경을 여유롭게 둘러 볼 기회는 여러 번의 일본여행 중에서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는 다른 조의 참가자들과 한 팀이 되어 신사를 구경하고 맛집에서 음식을 먹고 사진 찍으며 여유를 즐기는 것이 바쁜 일정 속에서 엄청난 힐링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관광당시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발표가 있었던 셋째날은 아침부터 마무리 작업과 피피티, 대본 작업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도 먹지 못한 채 마무리를 했으나 정해진 시간 내에 마무리 하지 못한 점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예민한 문제인 만큼 덜 날카로운 발표를 준비하려 노력하다 보니 어떻게 정리를 해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른 조의결과물을 확인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 포럼의 참가 의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참관해주신 기자님의 진솔한 대답도 듣고 한일간에 궁금했던 점들을 조금이나마 솔직하게 듣고, 서로의 의견을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정적이었던 발표시간 후에는 맛있는 바비큐파티가 있었고, 3 일간 동고동락했던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며 폐회식과 마니또 발표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전에 준비해갔던 선물을 전달하고 서로의 마니또가 누군지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것 또 큰 추억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인 대표로 MVP 로 선정되어 지난 3 일간의 노력과 애정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사에서 뽑았던 운세에서 이번 여정에 의미를 갖고 최선을 다하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정말 운세대로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얻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포럼에 참가한 계기는 일본 친구들과 평소에 하지 못할 얘기들을 '진솔하게, 대놓고'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럼 신청을 했던 5 월과는 다르게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예민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처음엔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어찌면 양국의 대표가 되어 나누는 자리가 너무나도 뜻 깊었습니다. 포럼의 회장님이 저희에게 폐회식에서 '여러분은 차세대가 아닌 현세대 입니다'라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지난 3 일간 현 세대를 대표할 우리가 어찌면 작은 발판을 닦은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해외를 나가는 것도 처음이고, 가는 동안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후기를 쓰는 지금 애를 쓴 시간들 전부가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후회없는 4 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